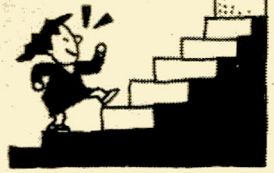


당신의 경쟁력
자신있습니까

15



‘안기기’ 보다는 ‘안아주는’ 쪽이 되자

‘커피 타기’가 두렵지 않은 대범한 자신감을

박효신 / 한국광고주협회 홍보부장

“부장님, 차 드세요.”

우리 사무실 남우성 씨가 출근해 가방을 내려 놓자마자 차부터 한 잔 타가지고 와 내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

“고마워.”

찾잔을 손 안에 감싸니 이른 아침 찬 기운에 손바닥이 따끈따끈한 것이 기분 좋다. 오늘 따라 냄새도 별 다르게 구수하다.

“응? 대추차네...우리 사무실에 대추차도 있었어? 내가 대추차 좋아하는 걸 어느 인간이 다 알고 이렇게 사다 놓았나?”

남우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더니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다.

마누라가 끓여 준 걸 보온병에 담아 왔단다. 내가 대추차 좋아하는 걸 알고...

남우성 뿐 아니라 우리 사무실의 남자직원들은 유독 정이 깊다.

“오늘은 왜 아침부터 배가 고프냐...”

혼자 사는 내가 아침을 으레히 걸르는 것을 직원들은 잘 안다.

임원실에 들어갔다 나오니 어느새 누가 내려 갔었는지 도시락 김밥을 따끈따끈한 물 한 잔과 함께 쟁반에 받쳐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

“...이거 남우성 씨가 한 것이야?”

“아닙니다. 이 대리가...”

“내가 남편은 없어도 이 맛에 산다. 하여튼 고마워.”

요새 젊은 사람들, ‘개인주의다. 자기만 안다’ 하지만 사람 나쁜 것 같다.

우리 직원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여자 상사에게 커피 타주고 도시락 사다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유능하다. 어디에 내 놓아도 일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존심도 남다른 사람들이다. 공연히 관료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서툴게 굴었다가는 우리 직원들에게 개망신

당하기 일쑤다.

그들을 여유롭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대기업의 임원 한 분이 ‘왜 여자들은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전화 예절을 지키자고 했더니 왜 여자들한테만 그러느냐고 따지더라. 여자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직

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말이다.

‘요새 하도 이상야릇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여직원들이 있어서 복장 좀 단정히 하고 다니자고 했더니 왜 남자들한테는 그런 소리 안하면서 여자한테만 그러느냐는 거야... 그건 여자라서가 아니거든... 친구끼리 놀러 다닐 때야 무슨 옷을 입을들 누가 말을 하나... 그래도 일터에 나올 때는 최소한의 예절은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니야?’

그 임원은 무슨 지적을 하면 그 말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는 ‘왜 여자들한테만 그래요?’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여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에



OFOMLQ9

두 팔 속에 들어갈 때 그 공간은 아주 좁지만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피해의식은 결국 ‘자신이 없음’에서 나온다.

한때 ‘커피’가 여성문제의 상징처럼 된 적이 있었다.

‘나보고 커피 타라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해야 돼요?’

여성 상담실에 수없이 날라 드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요새는 그걸 묻는 여성들

이 거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직장 풍속도가 달라진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직장에서 자기 자리가 분명하다면 ‘커피 타는 것’ 뭐 그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는가.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차 대접해 줄 수 있는 일이고 직장에서의 상사에게 윗어른 대하듯 ‘차 드시겠어

요? 하면서 먼저 모실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커피 타는 걸 두려워 말라. 커피 타는 것에 신경 쓰다가 더 큰 것을 놓치지 말라.’

요새 X세대를 대표하는 연예인 중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한 사람 있는데 ‘신은경’이다.

처음에는 시원시원한 연기를 유심히 보면서 ‘젊은 친구의 연기가 참 좋다’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언젠가 한 TV쇼에 출연하여 그가 보여준 단면을 보고는 ‘역시 좀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쇼 프로그램의 제목은 기억에 없지만 TV 드라마에서 파트너였던 ‘구본승’과 함께 무대 위에 출현하고 있었다. ‘구본승’이 군입대를 받아 놓고 초대된 자리였다.

사회자가 신은경씨에게 묻는다.

“...떠나는 구본승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죠.”

그때 신은경은 이렇게 말했다.

“한번 안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체구가 남다르게 큰 구본승을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신은경이 꼭 안아 주었다.

오히려 구본승은 어색한 듯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이 우스웠다.

신은경의 시원시원한 연기는 바로 ‘안기는’ 것이 아닌 ‘안아주는’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다.

상대방이 두 팔을 벌리면 들어 가서 안기는 것과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안아 주는 것에는 생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두 팔 속에 들어갈 때 그 공간은 아주 좁지만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안기기’ 보다는 ‘안아주는’ 쪽으로 의식을 한 번 바꾸어 보면 어떨까. 세상은 참 달라 보일 것이다. 더 넓고 여유로워질 것이다.